

虛勞

李錫熙



1. 五勞 六極 七傷

옛날 어떤 사람이 蓼王에게 不死藥을 바쳤다. 그런데 그 藥을 傳達하는 官吏가 중간에서 가로채어 먹어버렸다.

然後에 이 事實을 알게 된 蓼王이 크게 노하여 그 관리를 잡아다가 處刑하려 하였다 不死藥을 먹고 不老長生을 바라고 훔쳐 먹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즈음에 刑場에 서서 말하기를 “제기랄 죽지 않는 不死藥이라 하기에 훔쳐 먹었더니 그 藥을 먹고 죽게 되었으니 그 藥이 바로 死藥인가 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蓼王도 어이가 없어 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傳해져 오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 世上에 不死藥이 있다고 한다면 萬病의 原因인 虛勞가 있다한들 그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없으리라. 虛勞라 함은 虛弱하고 不足하고 勞困하고 不便하고 痾로 하고 고달픈 모든 것을 通稱한다.

本草綱目에 모든 痘과 積勞는 모두 虛로 因하여 生기게 되고 虛는 모든 痘을 誘發한다고 表現하고 있다 人體가 虛勞하면 五勞가 발생하고 痘症이 더 나아가면 六極이 되며 六極이 더욱 惡化되면 七傷에 이른다

(1) 五勞(心勞 肝勞 脾勞 肺勞 腎勞)

① 心勞(血의 損傷) 급격한 感動, 기뻐하거나 과격하게 노하면 大便이 丹活치 못하고 입안이 헐며 瘡이 生긴다

② 肝勞(神志의 損傷) 얼굴과 눈이 마르고 검게 타며 精神不安, 視力이 밝지 못하며 때때로 눈물을 흘린다

③ 脾勞(食의 損傷) : 口苦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터진다 또는 입술이 탄다.

④ 肺勞(氣의 損傷) 呼吸促迫 面浮 臭覺이 둔하게 되고 가래 기침 나고 兩肋骨 밑이 膨脹하고 통증이 생긴다

⑤ 腎勞(精의 損傷) 少便黃赤 少便不利 腰痛 耳鳴 多夢 등의 症狀이 있다

以上의 모든 症狀은 五勞를 발생 유발하는 原因이지만 大體로 虛요, 不足症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治法大要에 虛則補요 實則瀉라 하였으니 우리들 韓藥이 大體로 補하는 藥으로 優秀하고 有能하며 또한 特性이 있다고 할 것이다. 平生을 韓方家로 지낸 분께서는 補藥을 쓴 경우와 一般病治藥을 쓴 비율을 十中八九는 補藥을 지어준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지난 날의 경우이고 오늘날에는 못먹는 사람보다 잘먹는 사람의 數가 많아서인지 본인의 경우는 半程度가 補藥이고 半이 一般病治藥이라 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虛勞는 弱하고 勞하고 損하고 不足 不至하여 五勞가 되는 것이다

(2) 六極(筋極 骨極 血極 肉極 積極 氣極)

五勞의 程度가 지나치게 되면 六極이 된다

① 筋極 저절로 筋肉이 경련을 일으키고 손톱이 아리는 증상이다

② 骨極 잇몸이 아리고 잇발이 절로 치솟아 흔들거리기도 한다

③ 血極 血色이 좋지 않고 절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④ 肉極 몸이 스물거리고 筋肉이 마르고 검게 된다.

⑤ 積極 無氣力하고 피부가 潤하지 못하고 눈에 광채가 없으며 야위고 全身이 가렵고 瘡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⑥ 氣極 胸脇이 끓치고, 치받치고, 잘 노하고, 無氣力하여 말하기도 힘든 경우이다

以上과 같은 六極이 甚하게 惡化되면 七傷으로 나아간다

(3) 七傷(陰寒 陰瘡 裏急 精漏 精少 精清 少便數)

元나라 때의 朱震亨이 말하기를 인체는 虛하기 쉽고 血은 不足하기 쉬우니 氣血을 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시로 補藥으로

補強해야 한다고 하였다

2. 五慾과 虛勞

사람이 虛勞로 體力이 弱하게 되고 不足 未及하고 疲累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옛날 古史를 살펴보면 2妙理를 解得할 수 있다 中國太古聖王皇帝가 在位拾五年에 天下가 大平한지라 그때부터 聖王은 自己의 健康을 위하여 補養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차로 皮膚는 검게 되고 야위고 五慾인 財慾 色慾 食慾 名譽慾 睡慾 등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煩悶이 많아서 健康치 못하게 되고 天下는 다시 混亂스러워져서 五精(喜怒哀樂慾)이 더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에 皇帝는 크게 탄식하면서 自身의 生活方式이 잘못되어 자신과 백성을 위해 바람직한 바 못되니 내 마음이 快하지 못한지라 政事를 멀리하고 오직 心身을 닦는 일에 힘을 다하던중에 어느날 皇帝가 곤하게 낮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萃胥氏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五慾과 五情이 없어서 名利와 世慾을 모르는 世界로 太平하여 늙거나 죽지도 않고 疲累하거나 不足 不及하거나 病들지도 않는 世上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皇帝는 주위의 신하들을 불러 꿈얘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道를 배운 것 같은데 不明하니 한마디 말로 傳할 수 없구나 하였다 한다 其後 二十八年이 경과하여 皇帝는 스스로 道를 깨우쳐 지난 날 꿈속에서 萃胥氏 나라에서처럼 慾情과 名利와 病들지도 죽지도 않는 理致를 깨우쳤다고 한다 즉 “慾心을 버리면 疲累치 아니하고 不足함도 不及함도 없으니 天壽를 누리리라”고 하였다 한다

3. 虛勞의 原因中(色傷)

金匱血痺虛勞病脈症篇에 虛勞는 外的으로 酒色이 過하거나 過勞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內的으로는 七種의 감정적 激化 飲食으로 因한 것, 기호품의 過多섭취 過慾 등이 主原因이라고 할 수 있고 色傷은 色傷腎則 精室空虛라고 하였다 즉 男子의 行陽(陽事 犯房)이 지나치면 눈과 귀가 그 機能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며 陰萎 更年期 障碍 腰膝痛 囊濕 冷 不起 氣力衰弱 등이 된다. “色을 貪하고 節調하지 아니하면 天壽를 다하지 못한다”고 素女는 말하였다 또 素女經에는 大體로 사람들이 健康할 때

는 無心코 지내다가 氣力이 枯渴된 七傷의 상태에 이르러 健康을 근심하고 長生을 生覺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4. 季節과 虛勞用藥(色傷用藥)

素女經에 論하기를 皇帝가 高陽負에게 묻기를 “虛勞하여 五勞六極七傷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症狀이 나타나는가?” 하고 물었다. 高陽負가 대답하기를 “婦人은 때도 없이 經水와 玉露가 흐르며 氣力이 없고 子息을 孕胎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男子는 陰汗 精力衰退 精清 精少 囊濕 少便數 陰莖行事不能이다”고 하였다. 한편 東醫寶鑑에는 陰寒 囊濕 無脚力 陰萎 裡急 精漏 精少 精清 小便數으로 表現하고 있으니 素女經과 東醫寶鑑은 表現의 差異는 있지만 實際로 같은 痘候라 할 수 있다. 다만 東醫寶鑑은 男女의 區別을 두지 않았고 素女經은 男女를 區別하여 論하였다

가. 春季 虛勞에 更生丸

茯苓 菖蒲 山茱萸 天花粉 菟絲子 牛膝 赤石脂 細辛 防風 山藥 繢斷 蛇床子 桔子仁 巴戟 遠志 石斛 杜沖 肉蓴蓉 各150g 乾地黃 263g을 製粉蜜丸 梧子大 每十九溫水下 日三服.

나. 夏季 虛勞에 補身 茯苓丸

桂心 225g 黃芪 150g 山茱萸 澤瀉 山藥 細辛 肉蓴蓉 各113g 茯苓 附子 杜沖 牧丹皮 石斛 各75g을 製粉蜜丸 梧子大 朝夕食後七丸式 溫水下 日二服

① 禁忌 · 파, 生菜, 식초, 후추, 돼지고기, 냉수

② 加減 : 腰痛에는 杜沖 25g 追加 顏面蒼白한데는 桂心 75g 追加, 囊濕 陰陽痒에는 石斛 25g 追加, 食慾이 없을 때는 白茯苓 25g 追加, 搔痒症에는 山茱萸 35g 追加, 少便不便時에는 澤瀉 35g 追加.

다. 秋季 虛勞에 加減補腎茯苓丸

茯苓 牛膝 各 113g 防風 桂心 白朮 細辛 山茱萸 山藥 澤瀉 附子 乾地黃 紫苑 芍藥 丹蔘 黃芪 沙蔘 肉蓴蓉 元蔘 人蔘 苦蔘 獨活 各 75g 以上 22種을 製粉蜜丸 梧子大 食後五丸式 酒下 日三服

■ 虛勞

라 冬季 虛勞에 垂命茯苓丸

茯苓 白朮 澤瀉 桂心 牡勵粉 蔓莉子 山藥 杜沖 天雄 人蔘 石長生 附子 乾薑 菟絲子 巴戟 肉蓯蓉 山茱萸 灸甘草 天門冬 各75g을 製粉蜜丸 梧子大 每食後五丸式 溫水下 日三服

- ① 禁忌 . 해조류, 배추, 잉어, 파, 돼지고기, 식초

마. 四季 通用方 茯苓散

茯苓 鍾亂 雲母粉 石膏 石昌蒲 柏子仁 菟絲子 繢斷 杜沖 天門冬 牛膝 五味子 澤瀉
遠志 甘菊 蛇床子 山藥 山茱萸 川芎 石韋 乾地黃 肉蓯蓉을 各同量으로 製粉作末하여
每食後마다 茶숟가락으로 1번씩 朝夕 溫水服用 日再服

(학술위원 경남 김해시 전하동 43-12 세종당한약방 ☎ 336-4664)